

무변신보살, 왜 여래의 정수리 못보나

그러므로 “오직 이 일승(一乘)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단지 부처님의 방편설 만은 제외한다.”고 하셨다.

한 마음에 대한 안목이 투철해지면 오직 일승만 실상일 뿐이고, 이승이나 삼승은 이미 구질구질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선은 오직 불이(不二)의 실상만 직지(直指)할 따름인 것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어리석은 눈높이에 맞추어 그때그때 방편을 베푸신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니 예외로 한다. 후대에 와서 명안중사들이 언하(言下)에 계합해 들어오지 못하는 공부인을 위해 간화(看話)의 장치를 시설했던 것도 같은 노파심절에 의한 것이다. 위의 계승은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7. 무변신보살

배후가 물었다.
“무변신보살(無邊身菩薩)은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배후 재상은 황벽스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규봉종밀(圭峰宗密) 스님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종밀은 화엄종 5조인 동시에 선종인 하택종 5조이기도 해서, 교(敎)와 선(禪)에 두루 밝았다. 그래서 배후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된 것이다. 무변신보살이란 ‘가없는 몸의 보살’ 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테두리가 없는 무경계의 보살인데, 그런 보살이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황벽선사가 대답했다.
“실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보살이란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변신보살은 곧 여래이므로, 여래가 여래를 본다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은 《열반경》의 《서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다만 그대들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부처라는 변견(邊見)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있다[有]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없다[無]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범부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성인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불법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로서, 이런 저런 말들은 모두 공부인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8)



범어사 주지

무변신보살이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못 보는 것이다

불법은 무념, 무상, 무주

이런 저런 말들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게

가르치는 방법

불법은 불이의 중도

견해만 없으면 즉시 무변신

견처가 있으면 곧 의도

여래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

낙처를 살필줄 알아야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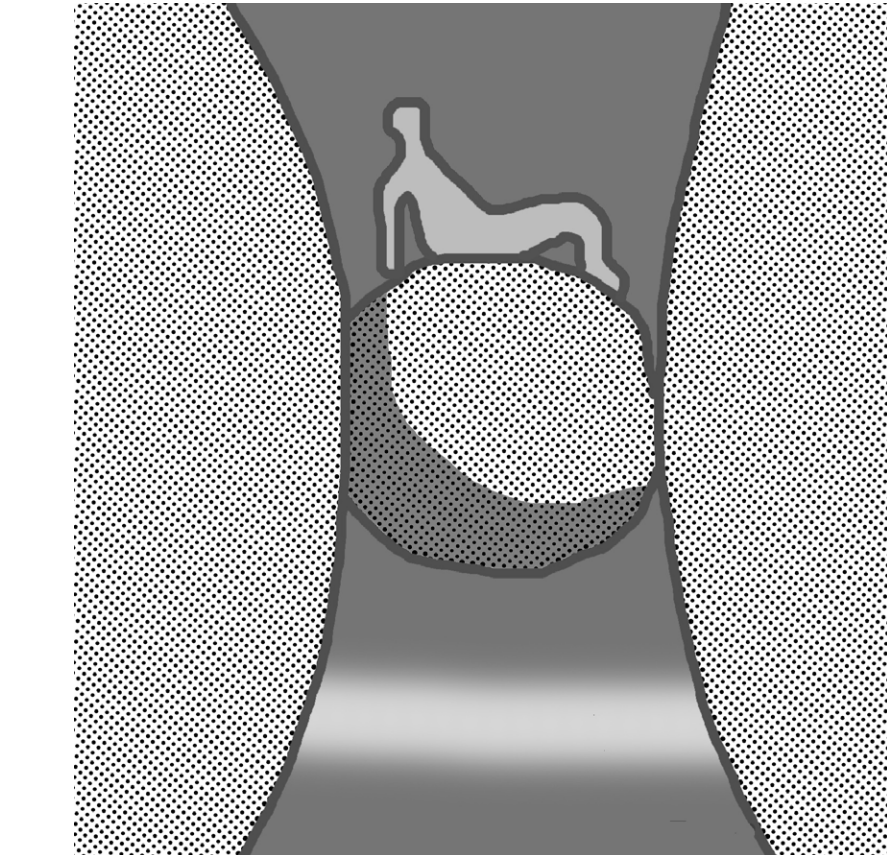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양변을 이루므로, 부처를 구하면 곧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게 된다. 미혹한 사람은 뭔가 잘 해보려고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좋은 것은 곧 나쁜 것과 양변을 이루므로, 구하는 즉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는 것이다. 불법은 불이의 중도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즉시 ‘가이 없는 몸(無邊身)’이다. 만일 무엇인가 견처(見處)가 있으면, 곧 의도라고 한다.

불법은 본래 청정으로 특 특여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무언가 보았다거나 얻었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변견을 붙잡고 국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비로소 무변신과 조금이라도 상응할 분(分)이 있다.

의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래란 곧 모든 법에 여여(如如)하다는 뜻이다.

의도란 분별적 견해에 탐착하여 밖으로 마음을 일으켜 나가기 때문에 의도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보살은 다만 본래성품에 묵연히 계합하여 적적(寂寂) 부동할 따름이다. 보살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조금도 움직인 바가 없다. 여래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늘 여여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허공은 흔적 없이 여여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미혹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셨다. 여여

한 즉 남[誰]이 없고, 여여한 즉 멸[滅]도 없다. 여여한 즉 불[無]도 없고, 여여한 즉 들음도 없다. 여래의 정수리는 즉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본다는 것 또한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변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여부동(如如不動)’ 한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인과가 붙을 수 있겠나? 그 자리는 인과법이나 연기법과도 상관 없다. 수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것이다. 안목을 연 사람만이 그 근본 실상자리를 살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무변신보살이 여래의 정수리를 보니 안 보니 하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낙처를 살필 줄 알아야 이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함이 없어서(無爲) 수로 셀 수 있는 범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처럼 부처님 몸 또한 가이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면 가장 크고, 작다고 하면 가장 작다. 그것을 이제 ‘공(空)’이라고도 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연기법에 따라서 크거나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 실상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다는 양변에 떨어지지 말고, 즉각 당처에 착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84



부인이여, 여래가 그대에게 허락하므로 사양하지 말고 설해보도록 하소서

(승만경)

우리와 (승만경)

원효 스님 저서에 《승만경소》가 있었다. ‘소(疏)’는 주석서를 일컫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목록을 통해서만 알려질 뿐 《승만경소》 자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일본 스님들의 저서 중에 원효 스님의 《승만경소》를 인용한 것이 더러 있다. 그 인용구절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모아놓는 작업을 하신 분이, 얼마 전 불의에 작고하신 김상현 교수님이셨다.

일본의 스님들은 우리 스님의 저서인 《승만경소》를 읽고, 무언가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스님의 저서를 그 편린(片鱗)이나마 만날 수 있으니 역시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승만경》이 우리에게 읽혀온 역사가 그것뿐일까? 어쩌하여 우리는 이렇게 《승만경》을 잘 안 읽었던 것일까? 원효 스님의 경우에서 그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원효 스님은 《승만경소》만 저술한 것이 아니라, 《유마경소》 역시 저술했다. 마찬가지로 전하지 않는다. 《승만경》 《유마경》은 공히 재가불자가 그 설법자로서 활약한 경전이다. 특히 《유마경》은, 유마거사로부터 출가한 스님들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다 ‘한수’ 배우는 장면이 실려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그 많은 사찰의 법회나 불교교양대학 등에서 《승만경》이나 《유마경》은 별로 강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유마경》은 백봉 거사님이나 불연 선생님과 같은 재가자들이 강의한 적이 있고, 《승만경》은 근래 이인자 선생님의 발원으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읽기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재가자가 설법한 경전, 이라는 형식을 벽(壁)으로 인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벽 앞에 막혀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원효 스님 같은 큰스님이, “재가와 출가는 둘이 아니라”는 대승의 불이(不二)사상에 절제했던 것이리라.

일본의 《승만경》

우리에게 《승만경》이나 《유마경》이 그다지 널리 읽히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 불교가 출가주의 불교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달랐다.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은 그 역사의 첫걸음에서부터 밀바탕에 놓이게 된다. 한 사람의 거사에 의해서, 그 세 가지 경전이 강술(講述)되고 강찬(講讚)되었기 때문이다. 쇼토쿠(聖德)태자가 바로 그분이다.

고모가 스이코(推古)천황이었는데, 태자에게 정치를 맡겼다. 섭정(攝政)이 된 것이다. 이 쇼토쿠태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쌓은 분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7조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황제가 불교를 강의한 일이



그림 · 박구원

있지만, 쇼토쿠 태자 역시 정무를 보는 한편으로 대신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이다. 이들 세 경전에 대해서 각기 주석서를 지었으며, 강의를 했다 한다.

물론 현재의 학문적인 연구로는 다른 이야기 역시 있다. 예컨대 《승만경》에 대한 주석서는 돈황문서라는 이야기 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이들 경전을 강의한 쇼토쿠태자에 대한 신앙(태자신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사찰의 법당에서 쇼토쿠태자를 모시고 예배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늘날 일본불교의 한 특징으로 재가불교를 들고 있는데, 그 원류로 신란(親鸞) 스님이 말해지기도 하지만 그 신란 스님 역시 쇼토쿠태자를 깊이 신앙했다. 그러니까 그 원류에 쇼토쿠태자가 있는 것이고, 바로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과 같은 경전이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3년 9월 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